

봄이 무르익었다. 봄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집안 밖으로 이끌어낸다. 두툼한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화사하고 가벼워진 봄옷 차림으로 계절을 즐기게 한다. 지난달 중순께에는 난데없는 꽃샘추위와 황사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넉넉하고 포근한 봄 햇살은 아직 우리의 외출을 기다리고 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즌이다. 밖으로 향하면서도 못내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IT 세상에 살고 있다보니 야외에 나가면서도 IT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정보의 도구를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 휴대전화는 기본이고, MP3 플레이어나 PMP 등의 멀티미디어 재생도구,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기기들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이제 일반화되었다. 최근에는 PC마저도 사용자의 외출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봄나들이를 떠나는 PC의 화려한 외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봄바람 난 PC의 화려한 외출

웬만한 사람은 알만한 고전 유머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한 남학생이 있었다. 속옷이 단 한 벌일 정도로 살림살이가 여의치 못했다. 사건은 그 속옷 때문에 발생했다. 그 귀한 속옷을 세탁한 후 다음 날 학교를 가려고 보니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하신 수 없이 옆에 널려 있는 누나의 속옷을 몰래 챙겨 입고 등교를 했으나,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 날이 신체검사 날이어서 레이스 달린 꽃무늬 속옷을 반 급우들과 선생님에게 들켜 적잖은 창피를 당했다. 그 때문에 결국 가출하기로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은 사방팔방으로 그 단별 팬티의 학생을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 학생의 귀가를 종용하는 문구를 종이에 써서 동네 여기저기에 붙여 두

었다고 한다. 'ㅇㅇ아, 아빠 팬티 줄여 놔다, 엄마 팬티 앞 터됐다, 너희 누나 학교 좀 가자. 이 글 보면 얼른 와라.' 라고... 요즘 보면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 이번 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PC가 그 주인공이다. 예전 같으면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던 PC였으나, 최근의 기술 발달은 PC를 봄바람 나게 만들어 바깥세상으로 뛰쳐나가게 했다. PC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된 것이다.

PC가 갖추어야 할 미덕

개론적인 이야기지만, 집 나간 PC를 찾아 나서기 전에 우선 그의 신상 파악을 좀더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PC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자. PC는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로, 업무용 컴퓨터와 구분되는 이름으로 사용했었지만 요즘에는 업무용 컴퓨터 역시 개인용 컴퓨터화되어 있으므로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고도의 기능 처리를 위한 서버 장비나 워크스테이션 장비들과 비교하자면 크기가 작고, 값이 싼 대중적인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자고로 PC가 컴퓨터라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컴퓨터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컴퓨터의 CPU가 담당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 조작을 위해서 입력 장치가 필요하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출력 장치가 필요

하다. 사용자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나 마우스, 태블릿 등이 쓰이고,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와 프린터 등이 있다.

셋째, 이러한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OS(Operating System)라 한다. 가장 일반화된 OS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시리즈(Win XP·Win NT·Win CE 등)와 유닉스, 맥 OS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PC로 문서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사용자가 입력 도구를 통해 지시한 연산을 실시한 후 출력 장치로 보내기만 한다면 매번 같은 연산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억장치다. 자료를 임시로 저장해 놓았다가 불필요할 경우 날려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와, 사용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계속 저장을 해두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다.

대략 이 정도의 기능을 갖추어야 컴퓨터라 부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몇몇 자격 요건이 더 생겼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상황이며, 컴퓨터로 게임과 영화, 음악을 즐기는 오락 기능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도구로써 역할하고 있다. 이를 위해 PC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이나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지원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기능에도 충실해야만 한다.

과거에 이런 기능을 갖춘 PC는 주로 CPU와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 각종 확장 카드로 구성된 컴퓨터 본체, 그리고 키보드·마우스·모니터·프린터·스피커 등 입출력 관련 주변기기와 연결되어 책상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PC를 일컬어 데스크톱 PC라 불렀다.

주변기능을 통합한 노트북의 출현

과거에도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마저 한 몸에서 지닌 형태의 컴퓨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1979년 영국의 윌리엄 모그리지가 개발한 <그리드 컴패스 컴퓨터 1109>를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라 말하기도 하며, 1981년 애플사가 개발한 <HX20>이나 1982년 컴팩에서 선보인 <컴팩 포터블>을 지칭하기도 한다. 1981년에 발표된 휴대용 컴퓨터 <오스본 1(Osborne 1)> 모델 역시



1981년 4월 오스본컴퓨터사에서 발표한 휴대용 컴퓨터의 선구주자 <오스본 1>의 모습

키보드와 5인치 모니터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하여 무게는 24.5 파운드(대략 11kg)로 사실 휴대의 개념으로는 상당히 버겁긴 하다.)에 OS로는 CP/M이 탑재된 제품으로 정말 앞선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오스본컴퓨터 사는 후속 제품에 대한 비전을 너무 일찍 발표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후속 제품 구매를 위해 소비를 보류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가 되지 않아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현재는 마케팅 용어에서 '오스본 효과(Osborne Effect)'라는 용어를 남긴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현재 형태의 노트북은 1989년 도시바에서 발표하게 된다. 1985년에도 세계 최초 랩톱 PC인 <T1100>(두께 7cm, 무게 6kg)을 발표하긴 했지만 노트북이라고 불릴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무릎에 놓고 쓸 수 있는 의미의 '랩톱(Lap Top)'으로 불렸다. 1989년 발표한 700CT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도시바 다이나믹 시리즈가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노트북'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덮개를 덮으면 A4 용지의 면적과 비슷하

여 마치 공책을 닮았으며, 10MHz의 인텔 8086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MB의 메모리에 무게는 2.7kg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컴퓨터 본체는 물론 모니터와 키보드 등 필수 주변기기를 포함한 일체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른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몇몇 컴퓨터들은 '포터블'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된 지 오래며, 데스크톱 PC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휴대성과 간편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초의 노트북으로 명명된 <도시바 다이나북 700CT>모델. 이 제품은 1989년에 선보였다.

시장조사기관인 한국IDC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 전체 PC 시장에서 노트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24~25%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1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노트북들은 물론 휴대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휴대라는 개념보다는 데스크톱 PC의 대체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kg 남짓 되는 무게는 사용자와 함께 자유롭게 외출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무게가 아닐 수 없다. 봄바람 났다고 한 PC는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옥외 컴퓨팅의 세계

마케팅 분야의 항목 중 하나인 편익에 대한 일화 중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유무선 통신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 발생할 비용 편익 중 하나로 자동차 이동의 감소에 따른 시간과 유류 등 경제적인 이익을 예상한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통화의 발달이 사람들의 이동을 대체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 알다시피 보기 좋게 어긋난 추론이었다. 이동통신이 최첨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은 잦아지고 교통은 정체되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람들을 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 돌아

다민서까지 업무를 보고 정보를 찾게 만들었다. 컴퓨터가 없고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사용자도 늘었다. 이제는 집과 사무실을 벗어나 길거리에서, 전철과 버스에서, 카페와 공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니즈가 휴대성과 이동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PC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서브노트북의 유행



무게 1.1kg에 불과한 전형적인 서브노트북 LG전자의 (TX-A224K)

노트북 중에서도 요즘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첨단 기능을 두루 갖춘 서브노트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브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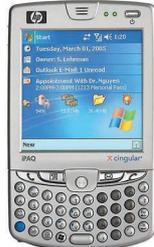
북의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무게에 비중을 두어 휴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략 중량 2kg 미만의 제품을 가리키며, 액정 크기는 주로 12인치 미만 제품을 말했으나 최근에는 13.3인치 제품까지도 서브노트북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브노트북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전체 노트북 시장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최근 LG전자에서 발표한 서브노트북 (TX 시리즈)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12.1인치 WXGA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PM-ULV 753(1.2GHz, 400MHz)가 장착, 메모리는 1GB, 하드디스크는 60GB, 유선 및 무선랜 지원 기능은 당연히 갖추고 있으면서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1.1kg에 불과하며, 두께는 23mm로 슬림하다.

데스크톱 PC 못잖은 사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휴대와 이동성을 갖춘 이러한 제품이 각 노트북 제조사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판매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도 2004년 말 발표한 무게 1.08kg의 12.1인치 (센스 Q30)을 통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거뒀고, 삼보컴퓨터 역시 서브노트북 판매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진행하여 현재 서브노트북의 판매 비중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안의 포켓 PC와 핸드헬드 PC



PDA 기능에 자판까지 갖추고 있는 (HP iPAQ hw6515) 포켓 PC. 이 제품은 Cingular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기능과 카메라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노트북과는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개념으로 포켓 PC(PPC)와 핸드헬드 PC(HPC)가 있다. 이들은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트북보다도 작아서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및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크기를 띤다. 외국에서는 둘 간의 용어를 주로 HPC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듯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둘 간의 구분은 주로 키보드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PPC의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PDA에서처럼 키보드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HPC는 양측만은 키보드가 함께 한다.

최근에는 HPC 쪽이 서브노트북 시장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신제품류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복잡한 연산 기능이 아닌 문서 작성 등을 주로 하는 작가 그룹 등에서는 아직도 애용되고 있다. 주로 와이드 형태의 액정화면

(NEC 모바일프로의 경우에는 8.1인치 HVGA 640×240 해상도)을 갖추고 있으며, 스타일러스 펜을 통한 입력과 키보드 입력을 동시에 허용한다. 윈도 CE 기반 플랫폼에서 구동하는 제품이다수다.

PDA로 대변할 수 있는 PPC의 경우에는 이동통신과의 연계,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장착을 통한 부가 활용 등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PDA에서 사용하는 OS로는 윈도 CE · Palm OS · 리눅스 · 심비안 등이 있으며, 초기 개인정보 관리 용도에서 출발하여 점차 엔터테인먼트 부분 강화, 주변 장치 연결을 통한 확장성 강조, 통신 기능 탑재 등을 통해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PDA의 저변 보급이 활성화된 외국 시장에 비하면 국내의 PDA 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PDA가 결합된 형태의 스마트폰 활용자도 자주 눈에 띄는 편이다.

노트처럼 사용하는 태블릿 PC

태블릿(Tablet)이라는 것은 주로 평판 또는 작고 납작한 판 위에, 코드나 무선으로 연결된 펜 등을 이동하면 마우스가 움직인다.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콘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그래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종의 입력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노트북의 액정 화면에 적용하여 개발된 PC가 태블릿 PC다. 키보드를 통한 입력 이외에도 터치스크린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액정화면에 필체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펜 입력을 통해 문자나 그림을 워드파일이나 오피스에 바로 입력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1992년에 '윈도 포 펜(windows for pen)—컴퓨팅'이라는 필기체 인식 윈도OS를 내놓았다가 실패한 바 있으나, 결국 2000년 컴덱스 개막 연설에서 빌 게이츠 MS회장이 '태블릿 PC'라는, 펜으로 입력할 수 있는 A4용지 크기의 신형 휴대용 PC를 선보이고, 2년 후인 2002년에는 태블릿 PC용 운영체제(OS)인 '윈도XP 태블릿 PC 에디션'을 발표하면서 태블릿 PC의 상용화를 앞당겼다.

태블릿 PC는 노트북 PC의 휴대성과 개인 정보단말기(PDA)의 편의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키보드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키보드가 없는 태블릿 PC를 슬레이트(Slate)형으로 부르고, 키보드를 갖추고 있으면서 LCD가 회전하는 준 노트북 PC 형태를 컨버터블(Convertible)형이라 부른다.

주로 태블릿 PC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컨버터블형이며, 펜 인식을 통한 잉킹(Inking)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 무선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는 있으나 기존 노트북보다 비싼 가격과 용도 효율성이 모



태블릿 PC의 대명사 후지쯔 라이프북 T 시리즈

호해서 주로 병원이나 학교 등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후지쯔의 라이프북 <T4020>의 경우를 보면, 윈도XP 태블릿 PC 에디션은 OS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텔 펜티엄 M 프로세서 750(1.86GHz, 2MB L2 Cache, 533MHz FSB) 탑재와 12.1인치 XGA 액정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A4 정도의 너비에 1.95kg 정도의 무게를 갖추고 있어서, 화면 디스플레이 및 태블릿 기능을 갖춘 화면 처리와 OS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노트북 PC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격 아웃도어 스타일 울트라 모바일 PC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제품은 바로 울트라 모바일 PC다. 약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UMPC로 줄여서 표기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획 설계 당시부터 '오리가미' (일본어로 '종이접기'라는 의미) 프로젝트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었고, 지난 4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3개사가 공동으로 울트라 모바일 PC 전략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UMPC 모델 <센스 Q1>은 휴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으로, 인텔 초저전력 CPU 900MHz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기존 노트북 PC의 1/3에 불과한 777g의 무게에 7인치 와이드 LCD와 터치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태블릿 PC에서 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XP 태블릿 에디션을 채용하고 있는 일종의 태블릿 PC로, 키보드가 별도로 없는 슬레이트형이라 할 수 있다. 태블릿 PC에서 보여주었던 잉킹 기능을 지원하여 일반 노트북처럼 모니터에 직접 입력하여 이미지로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상파DMB, 블루투스, 유무선 LAN을 기본 탑재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각종 멀티미디어, DMB TV 등을 즐길 수 있고, 키



휴대용 컴퓨터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삼성전자의 울트라 모바일 PC <센스 Q1>

보드나 네비게이션 같은 부가기능도 옵션으로 추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반 노트북 PC들과는 다른 독특한 기능으로 'AVS Now' 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윈도 OS의 부팅 소요 시간 없이 바로 영화와 음악·사진·동영상·DMB TV·네비게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환경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보여주었던 OS 로딩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5월부터 판매되며 가격대가 12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존 태블릿 PC보다는 훨씬 싸며, PDA나 PMP보다는 비싸면서 기능이 다양한 중간 시장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이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대우 루컴즈에서도 UMPC 모델 <M1>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무게 770g, 7인치 와이드 LCD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사용은 센스 Q1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130만 화소의 CMOS 카메라를 장착하여 화상채팅 등의 기능을 고려하고, SD카드·네비게이션·웹캠·무선랜·블루투스 등 각종 통신 기능을 갖추고, 와이브로와 DMB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상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잠정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휴대용 PC 도입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자동차 마니아용 차량용 PC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차량 이동이 잦은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생각해 봤을 것 같다. 서브노트북 등을 자동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다양한 차량용 노트북 거치대도 있으며, 전원 공급을 위한 시거잭 전원 어댑터도 여럿 나와 있다. 물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며 차량 안에 선이 너저분해지는 단점도 없잖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에서 컴퓨터를 쓰겠다는 열정이 우선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대우 루컴즈의 울트라 모바일 PC 모델 <M1>

차량용 PC 컨셉으로 만들어진 카 PC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다. 나센에서 제조 판매 중인 카 PC 제품을 보면 차량 안에서의 컴퓨팅 환경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7인치 인대쉬(In-Dash)

타입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CPU로는 인텔 셀러론 M 1.4 GHz, 메모리는 256MB, 하드디스크는 40GB에 DVD-ROM 슬롯까지 갖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구축할 수 있으며, 전용 후방카메라를 연결하여 후진기어 작동 시 후방의 화면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고, 외장 GPS 칩을 연결하여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도 사용하며, AM/FM 라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다. 입력을 위해서 무선 키보드가 필요하며,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TV는 옵션 기능으로 선택 제공하고 있다.

DIY 코너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한 사양의 카 PC를 제작할 수도 있으니, 한 시라도 컴퓨터가 없으면 참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운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컴퓨터 자동차 마니아라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만 하다.

어떤 제품과 함께 야외로 나설까

야외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다. 봄을 지나서 여름과 가을이 되면 야외활동은 절정에



나센의 차량용 PC

다다를 것이다. 이제는 앞서 살펴본 몇몇 컴퓨터들이 사용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의 내용을 통해 몇몇 제품의 추이를 살펴보았지만 사용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용자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항목이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공통 사항들을 꼽아볼 수 있겠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용용도다. 이동하면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래픽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철저히 서버 업무 중심의 컴퓨터를 고르는 게 나은 것이다. 단순히 텍스트 작업을 할 거라면 HPC급 컴퓨터만으로도 충분하다. 영화를 감상하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컴퓨터보다는 PMP가 더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도 갖추면서 컴퓨터 작업도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서브노트북이나 UMPC급이 적당할 것 같다.

용도에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DMB 및 멀티미디어 등의 자체 지원, 주변기기 및 내부 확장형,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지원 등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 이러한 부분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 중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실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기능이 많고 성능이 뛰어난 것이 좋아보여서 높은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고사양 제품을 구매하지만, 정작 사용하다보면 해당 기능 중 필요한 몇몇 기능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쓸 일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용도를 꼼꼼히 생각해 보고 고르도록 한다. 물론 집이나 직장에 또 다른 PC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선택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은 휴대성과 이동성에 적당한 제품의 무게다. 컨버터블형 태블릿 PC가 대략 2kg 정도로 휴대하는 컨셉에서는 다소 부담이 간다면, 1kg 내외의 서브노트북이나, 전문적인 휴대용 PC 컨셉을 내세우며 나온 800g 미만의 UMPC 등이 꽤 장점이 있다. UMPC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북과 PMP의 중간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양쪽 시장의 장점을 취합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

집과 사무실을 벗어나

길거리에서, 전철과 버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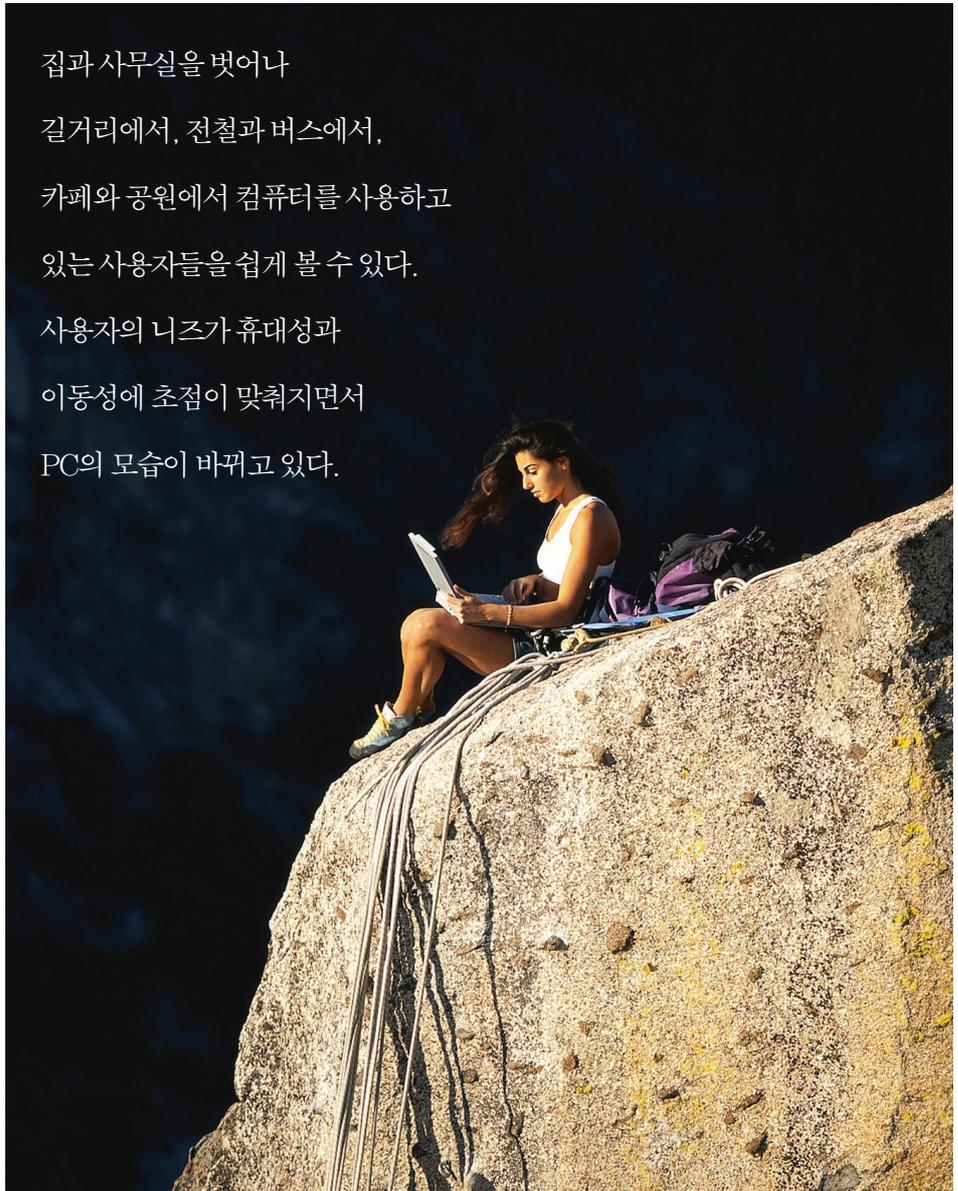
카페와 공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니즈가 휴대성과

이동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PC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해 불만족 제품이기도 하다.

휴대전화나 PMP 등에 있어서도 배터리의 수명이 중요하듯이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도 배터리의 수명이 관심 대상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기술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제품이 길어야 4시간 정도이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활용 시간이 대부분이다. 오랜 야외 활동을 위해서는 결국 추가 배터리 구매 및 충전 휴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옥외 컴퓨팅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제품이 더욱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나타날 것으

로 기대한다. 통신 환경에 있어서도 와이브로 등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보급되고, 방송 환경에서도 DMB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PMP에 탑재되는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탑재되는 GPS 및 LBS 기술 등 각 분야의 기술적 진화는 결국 사용자의 길거리 컴퓨팅 환경을 한층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 번 바깥으로 발길을 돌린, 콧바람 맛을 본 PC를 실내로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봄바람 난 PC의 귀가를 종용하기 보다 외출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나서봄이 어떨까. ☺